

목주를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



조갑출 베네딕타
적십자간호대학 총장

한가위로 인해 모처럼 깃들었던 넉넉한 마음이 아직 가져지지 않은 탓일까, 여전히 마음이 풍성한 채로 맞는 10월은 교회가 정한 “목주 기도 성월”이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는 이 엉터리 신자에게 교회는 때에 맞게 참 잘도 이끌어 주신다. 나도 모르게 탄성과 함께 터져 나온 혼잣말, ‘그래, 기도에 인색하지 말고, 최소한 10월 만이라도 목주기도 풍성하게 바치며 보내야지, 가을은 결실의 계절 이라는데, 영적수확을 풍성하게 하려면 목주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지.’

36년 가톨릭 신자로 살아오는 동안 이런저런 선물로 내 손에 전해진 목주는 참으로 많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는 목주를 선물로 받을 때 그다지 기쁘지가 않았다. 기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속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물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짐스러웠다. 그 중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목주반지였다. 서랍 속에 텅굴게 하기도 불경스러운 것 같고, 끼고 다니자니 그다지 독실하지도 않은 사람이 괜한 티를 내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이런 나의 생각을 명쾌하게 허물어 버린 사람들, 늘 목주를 지니고 다니는 두 분을 소개하고 싶다.

첫째는 피겨스케이터 김연아 씨다. 팔과 손가락으로 우아한 연기를 펼치는 순간 카메라에 잡힌 목주반지를 처음 보았을 때의 경이로움과 감동을 잊을 수 없다. 때론 시상대 위에서, 그의 볼 위로 흘러내리는 감격의 눈물을 훔치는 그 손가락에 끼워진 목주가 클로즈업되곤 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이 목주반지는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져 지구촌 곳곳에 생중계되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적극적인 전교가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이런 김연아 씨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톨릭에 호감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목주반지를 기피한 나 자신이 못내 부끄러웠다.

또 다른 한 분은 우리사회의 명망 높은 분이며, 평신도로서 가톨릭

계의 큰 지도자이신 분이다. 남성인 이 분은 언제나 목주반지를 끼고 다니신다. 어떤 때는 진주로 만든 목주팔찌를 곧잘 끼고 다니시는데, 단정한 검정양복 소매 끝의 하얀 진주팔찌가 너무도 안 어울려서 웃음이 나올 정도이지만, 조금의 주저함도 없다는 듯 그분은 목주팔찌를 즐겨 하신다. 아무리 바빠도 이동 중에 차 안에서 목주기도를 씬 없이 하신다는 말씀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이 두 분으로 인해, 그동안 서랍 속에 고이 간직해왔던 목주들을 꺼내서 분가를 시켰다. 출퇴근용 핸드백에도, 나들이 할 때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도, 직장의 책상 위에도, 거실 탁자 서랍에도, 침자가 상 아래 모셔진 성모상 앞에도, 그리고 목주팔찌는 내 손목 위로... 나도 이 두 분처럼 늘 목주를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것은 비록 사람간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듯싶다. 사물도 마찬가지로 눈에 띄지 않으면 잊혀 지게 되고, 자주 눈길 가는 물건이 마음에 살아있기 마련인가 보다. 예쁜 케이스 속에 넣어 서랍 속에 갇힌 채 긴 세월을 보냈던 목주들을 밖으로 내놓고 여기저기서 자주 눈 맞춤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애착이 가고, 나도 모르게 기도로 이어지곤 했다. 처음엔 눈에 뜨일 때마다 야릇한 죄책감과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으나, 이젠 스스럼없이 목주팔찌를 끼고 다니게 되고, 공원 산책 길에도 목주팔찌를 끼고 나가, 운동과 기도를 동시에 할 정도가 되었다. 목주에 대한 편협함을 깨고 나를 이토록 변화시킨 것을 보면 두 분이 늘 지니고 다니는 목주의 힘, 그 영향력은 정말 큰 것 같다.

문득, 나도 늘 목주를 가까이 지니는 사람이고 싶다. 기도에 더욱 충실하여 영적수확을 풍성히 거두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또한, 나의 목주팔찌가 그를 훑쳐보는 누군가의 가슴에 깊이 박혀 그가 목주를 더욱 사랑하고 기도생활을 가까이 하도록 변화시켰으면 하고 소망해 본다.